

2017 서비스제공팀 실천 이야기

만나는 이는 달라도 뜻은 하나



하는 일도 다르고 만나는 이도 다르지만
뜻있게 일하고자 노력했던 서비스제공팀 실천 이야기

2017 서비스제공팀 실천 이야기

만나는 이는 달라도 뜻은 하나

지은이 김동규, 김영우, 조현정, 최진열, 황은영

편 집 최진열

펴낸곳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연락처 02-2201-1333

홈페이지 www.gj.or.kr

이메일 gj1333@naver.com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www.gj.or.kr) 내 자료실에 최신 PDF 파일이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마음껏 공유해도 좋습니다. 다른 책이나 자료집에 담으려면 반드시 본 기관과 상의해주십시오.

차례

머리말 01

악성민원인(이라 불리는) 이 선생님 이야기 최진열 02

나들이는 숙제가 아니에요 조현정 14

청소년 캠프, 어색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즐겁다 김영우 22

우쿨렐레에 사랑을 싣고 황은영 36

좌충우돌 밀반찬 김동규 48

머리말

2017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 사회사업가 5명이 작성한 실천 이야기를 엮어 「2017 서비스제공팀 실천 이야기, 만나는 이는 달라도 뜻은 하나」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만나는 이도 다르지만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답게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했기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악성민원인(이라 불리는) 당사자와의 이야기,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또 하나의 가족 만들기 사업 ‘아주 특별한 가족’,

청소년 자유여행 프로젝트 ‘트래블프렌즈’,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자조모임 ‘우쿨렐레 교실’,

조리봉사팀의 수고로 만들어 매주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는 ‘밀반찬’

각자 담당한 사업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속에 담긴 이야기(기획의도, 실천과정, 이로 인해 생긴 변화, 소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실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실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실천을 늘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경집 관장님 이하 직원들과 사회복지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서비스제공팀 일동

악성민원인(이라 불리는) 이 선생님 이야기

최진열, 서비스제공팀 대리

사회복지사와 당사자 간의 갈등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복지관을 통해 관계 맺은 당사자분들과 불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잘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고 이 때문에 소원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는 사회복지 관련 무서운 사건들. 타 기관에서 일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무용담처럼 들던 이야기들. 그동안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운이 좋았던 건지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끔은 위와 같은 상황이 내게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악성민원인(이라 불리는)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저희 지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악성민원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습적 직원협박 및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2013년 10월, 부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이 선생님이 우리 관할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으니 주의하라고 하시더군요. 이 선생님이 이사 온 동네는 같은 팀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타 기관 선생님들에게 듣던 이야기들이 드디어 내게도 현실이 되는 건가 싶은 걱정도 있었지만 사례관리 업무를 맡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잘 해보자는 의욕이 앞섰던 시기였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겁낼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에 대해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기에 우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구청 사례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이 선생님과 많은 상담을 했던 구청 사례관리자는 자립의 의지가 없고 가족들도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라며 생각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막나가는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끈질기게 지원을 요구할 테니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생각과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서로 말이 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이 선생님에 대한 나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1.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2. 사적이든 기관차원이든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
3. 직원들과 기관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이 선생님과 첫 만남

며칠 뒤 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회의로 자리를 비운 터라 처음에 전화를 받은 직원이 혼이 났습니다. 메모를 확인하고는 호흡을 가다듬고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 선생님은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하니 가정방문은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수급자 신청을 하셨는지 물어보니 현재 수급을 중단한 상태¹⁾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수급자 신청을 하시고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와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 이에 대한 대답 없이 한 번 방문하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후 첫 번째 통화와 유사한 내용(지원 해달라, 우선 수급자 신청을 하셔라)으로 두 번의 통화를 하고 두 번째 통화를 한 다음날 이 선생님이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는 분이 왔다고 하여 상담실에 가보니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왼손에 봉대를 감은 이 선생님

1)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당시 긴급구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한 뒤 말씀 많이 들었다고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선생님도 멋쩍은 표정으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미남이시라고 칭찬을 하니 이 선생님이 웃었는데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을 보니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손의 감촉과 더불어 그리 많은 고생도 듣기보다 그리 나쁜 사람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처음 상담실로 향할 때보다 마음이 편해졌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마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얘기했을 것 같은 당신의 상황 얘기를 장시간 하시고는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겪었던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선생님은 악연(惡緣)이라고 하시지만 악연도 연(緣)이라고 선생님과 저희 지역은 애증의 관계인 것 같네요”

라고 말하니 이 선생님도 그런 것 같다며 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이후의 일들

그 후에도 이 선생님은 기관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겁먹거나 싫은 티를 내지 않는 저의 태도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농담이 재미있었는지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저희 기관에서는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복지관 외에 구청, 주민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던 이 선생님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결국, 다른 기관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로 인해 몇 번의 경찰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상습민원 대처방안 회의

2014년 1월, 구청에서 상습민원 대처방안 회의가 있어 부장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돌아와 출장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로 ○○동 이○○ C't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음.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뒤늦은 감이 있음. 작년 10월에 다시 전입을 왔을 때 회의해서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음. C't의 변화, 자립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었음. 강하게만 하는 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능사는 아닌데 앞으로 C't가 지역주민으로 살아간다면 이 분을 위해 민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 명확하고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

이 선생님에게 걸려온 전화

얼마 뒤 이 선생님이 치료감호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달쯤 지나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오! 선생님이세요?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반갑네요”

“나 지금 치료감호소에 있는데 외박 나왔어”

“아 진짜요? 잘 지내시구요?”

“그냥 그렇지 머”

“치료 잘 받으시고 나오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나중에 시간되면 면회 한 번 와”

“아.. 예.. 시간되면 한 번 갈게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돌아보면 이 선생님의 얘기는 잘 들어주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김치와 몇 번의 밀반찬뿐이었는데 말이죠. 면회를 갈까 고민도 했었지만 가지는 않았습다.

몇 달 뒤 치료감호소를 나온 이 선생님이 복지관에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날 관장님이 소개해주신 목사님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이 선생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구청 사례관리자에게 물어보니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선생님

이후 몇 년간 이 선생님을 볼 수 없었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갔습니다.

2017년 2월, 부장님을 통해 이 선생님이 출소를 했고 다시 저희 지역으로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다시 거기로 갈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긴 언제 들었어요? 소식 빠르네”

“선생님은 진짜 저희 지역을 사랑하나 봐요. 여기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몰라. 내가 그래도 거기 오래 살았잖아. 가게 되면 다시 연락할게”

이 선생님의 부탁

다시 돌아온 이 선생님. 이사한 곳은 저희 복지관이 담당하는 지역이 아니었기에 사례관리팀에서 만나기보다는 제가 만났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이 선생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고 이 선생님도 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다들 진짜 너무 한다”

“지원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그쪽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된다니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도 지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들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모습. 지원을 요청하며 구청, 주민
센터, 유관기관들과 티격태격하던 이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 여기 떠난다”

“진짜요? 어디로 가시게요?”

“OOO로 가려고. 내가 알아보니깐 거기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근
데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일단 말씀해보세요”

“미안한데 나 이사 좀 도와줘라. 짐이 없어서 복지관 차면 충분해”

“알겠어요. 그럼 제가 기관에 얘기하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꼭 좀 부탁할게. 내가 친한 사람이 최 대리 밖에 없잖아”

전화를 끊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친한
사회복지사가 나라니. 그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이 선생님을 위했
는지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부장님께 보고 드리니 그래도 이사 간다

는데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여 이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도와드리다

약속한 날, 복지관 차를 가지고 이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 갔
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앞에서 기다리니 미소를 지으며 이 선생님이
내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박카스 두 병이 들려있었고 저에게
마시라며 건네주었습니다.

“머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래도 도와주는데 뭐라도 사야지”

“안 그래도 괜찮은데. 그럼 좀 있다 마실게요”

고시원에서 이 선생님이 짐을 가져오면 제가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짐이 많지 않아 금방 실고 함께 차에 탔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저희 지역은 안 올 거예요?”

“얘기도 하지마, 지긋지긋하다”

“그래도 이 동네 싸고 괜찮은 맛 집은 잘 알거든. 내가 알려 줄 테니
까 네가 사라”

어느덧 이 선생님이 살게 될 고시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고시원이

있는 건물이 시장 앞에 있는 대로변에 있어 장시간 주차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 건물입구에 신속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잘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성공하면 나중에 저희 기관에 후원도 하고 그러세요. 선생님은 좀 만 노력하면 된다니까요”

“그동안 고마웠어. 최 대리도 잘 지내”

“예, 선생님도 건강 하세요”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웃으며 헤어졌지만 기분이 그리 홀가분하다거나 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 돌아와 한동안 이 선생님이 준 박카스를 물끄러미 쳐다 보았습니다. 그 박카스는 오랫동안 제 책상위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에 대한 생각

그 뒤로 이 선생님의 소식을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 다. 들리는 이야기는 저희 지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 선생님의 지난 행적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립의 의지가 크지 않은 이 선생님과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하는 공공기관의 온도차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게 신기한 듯이 어떻게 이 선생님과 친해졌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 특별한 재주나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먼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

습니다. 물론 제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일했다면 이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사업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는 당사자의 역량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는 당사자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뜻을 이루어 가게 돕는 일²⁾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량강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강화는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립이란 무엇인가?’ 는 사례관리자로 일하면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주제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을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례관리자였는지 돌아봅니다. 이 선생님으로 인해 직원들과 복지관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선생님을 만나면 늘

“선생님은 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조금만 변하면 기관들도 도와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사 외에 이 선생님의 자립을 위해 작은 무언가라

2)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푸른복지, p.99.

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돌아온 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이 선생님의 변화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선생님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 정도가 지나쳐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악성민원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로 인해 힘든 적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을까, 이 선생님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의 삶에 큰 돌파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이 선생님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쓴 소리도 마다않는 좋은 이웃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면 좋겠습니다.

나들이는 숙제가 아니에요

조현정, 전 서비스제공팀 대리

터닝포인트 ‘지역사회보호사업 실무자 연수’

서비스제공팀으로 팀이 바뀌며 3월 사회복지사사무소 ‘구슬’에서 주최한 ‘전국 복지관 지역사회보호사업 실무자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오전근무를 마치면, 팀원들과 교육장으로 이동해 사회사업가로서 실천한 생생한 이야기를 같이 읽고 교육에 참여한 다른 기관 선생님들과 소감을 나누며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올해 내가 맡은 사업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떠올랐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교육 시기가 참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해 볼 사업은 아주 특별한 가족(줄여서 아특가)³⁾의 ‘가족 나들이’로 계획했습니다. 2012년 사업 초기, 독거어르신과 가족봉사단의 결연식을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외부로 나가 식사도 하며 가족 간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나들이’를 매년 초에 진행해왔는데 사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지속적인 활

3) 2012년부터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17가정이 매칭이 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가족봉사단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정서적 지지 및 여가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을 해오는 가족들에게 결연식을 위한 나들이 보다는 나들이 본연의 성격으로 진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하는 나들이 계획

각 어르신마다의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연 초 가족봉사단의 운영회의 때도 나들이 날짜,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습니다. 3월 사회사업으로 나들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며 결심했던 건 잠시 잊었습니다. 아트가 뿐만 아니라, 말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 나들이가 마음의 짐으로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어르신과 나들이 갈 만한 곳’,

‘가족 나들이’

‘서울 근교 나들이’를 검색하며 기존의 습성대로 단체 나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학생들 중간고사니까’

‘복지관 행사니까, 행사 끝나고’

“선생님, 어르신, 아이들이랑 나들이 갈 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많이 다니셨으니까 좋은 곳 많이 아시잖아요.”

이러며 장소 추천도 받아가며 예약 가능한지, 식사는 어찌되는지, 전화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차 싶었습니다. 3월 달 교육 받을 때 결심한 건 잊었구나 싶어 검색하던 것을 모두 멈췄습니다.

그 때는 나들을 “숙제”처럼 생각하며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연 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나들을 다녀오려고 했었습니다.

함께하는 나들이 계획

7월 달 가족봉사단의 ‘중간평가회’에 3월에 배웠던 나들이 사회사업 이야기를 소개하고 가족봉사단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나들이 사업에 적용해 보고 싶었고, 가족봉사단 어머니들도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에서 상금으로 받은 200만원을 17가정으로 나눴을 때, 한 가족 당 12만원을 나들이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법인카드 사용 대신,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동료에게 물어보며 개별 나들이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들을 개별가정으로 가면서 복지관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의 가족봉사단 대표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복지관 사업자등록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나들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나들이 때, 찍은 사진은 연말 ‘아름가의 밤’ 때 공유하고 소감도 나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간평가회는 근로하는 분과 근로하지 않는 분이 계셔서 평일 오전 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해 두 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중간평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기사업이다 보니 봉사자 어머니들 간에 이미 관계가 돈독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간평가회가 시작되었고 드디어 나들이에 대한 안내를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나들이 사회사업을 소개하는 구절을 함께 참여한 최진열 대리님이 읽었고, 어머니들은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눈으로 따라 읽으셨습니다.

올해 나들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더니 흔쾌히 “좋아! 어차피, 우리 어르신이랑은 사우나도 같이 다니는 사이라 날씨 선선해지면 찜질방 갔다가, 어르신이 갈비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갈비 먹으러 가려고 했었어요”

“친한 어르신이 계시니까, 두 가족이 같이 다녀와도 되겠어요”

라며 올해 나들이 취지에 맞게 바로 계획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반면,

“우리 어르신은 폐지를 줍고 계시는데 이 활동비 그냥 드리면 안될까요?”

“날씨 추워지면 어르신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어르신 필요한 신발이나 점퍼 사드리는 건 어때요?”

한 가족 당 12만원의 나들이 활동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어

르신들에게 생활비, 필요물품 구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며 직접적인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최진열 대리님이 복지관에서 후원금도 연결되어 있고, 연말이 되면 후원금, 후원품 등을 통해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비는 어르신과 가족봉사단이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근처로 나가 바람을 쐬고, 기분 전환 할 수 있는 취지로 사용하셨으면 한다면 취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2만원을 한 번에 사용해도 되고, 몇 회에 걸쳐 사용해도 되며 11월 말까지 사용하고 12월 아득가의 밤에 공유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 찍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간평가회 시간 역시, 첫 번째 때 나왔던 질문과 비슷하게 어르신께 현금으로 드려도 되는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드려도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고 올해 나들이 취지를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

걱정하고, 우려하지 않고 할머니와 점심식사 하러, 할머니와 바람 쐬러, 할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 날로 나들이를 생각해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가족봉사단분 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봉사가 어떤

것인지 직접 어르신과 만났을 때, 서먹할 텐데 그것을 감안하고 6년 썩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더 조용히, 성실히 임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중간평가회 때, 참여하지 못한 가족봉사단 어머니들에게는 개별 전화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가족봉사단 분들도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당일치기여행, 가볍게 영화, 식사를 하러 동네, 근교로 다녀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나들이를 걱정보다는 결연 맺은 어르신과 나들이 다녀오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별 나들이 시작!

첫 번째 가족이 나들을 다녀오셨습니다.

날씨 화창한 8월에 서울근교 ‘세미원’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세미원에서 어르신과 어머니가 찍은 사진 속 어르신의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부탁드린 사진, 영수증 모두 잘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활동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음번은 어디를 다녀오실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가족에게도 사진을 공유하며 나들이 다녀오시도록 독려해드렸습니다.

한 가족이 다녀오시니 다른 가족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 근교로 산책도 하고, 바비큐도 구울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아 다녀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차안에서 빵, 과자 등 주전부리도 하며 여느 가족이 나들이 다녀오듯이 다녀오셨습니다. 비가 왔었지만 오히려 더 운치가 있었다고 기분 좋게 다녀왔다고 하십

니다. 집에서 어르신을 뵈 때 보다 더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많이 대화를 했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없듯이,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못 잡는 가족도 계셨습니다. 그 땐, 단체 대화창에 제가 알아봤던 곳, 검색해본 곳, 동료들이 추천한 곳을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나들이를 본격적으로 다녀오실 텐데, 지금처럼 순조롭게 순항하는 것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응원이 있어 할 수 있는 도전

준비하는 과정, 나들이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차라리, 내가 준비하는 게 더 편했겠다.”

싶은 솔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회사업으로 나들을 다녀올 수 있게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부서장님의 지지가 매우 컸습니다.

혼자 했었다면, 지지가 없었다면, 중간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어 주춤했을 것입니다.

저처럼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싶지만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료의 지지가 굉장한 힘이 됩니다. 특히, 앞선 경험을 갖고 있는 선배의 지지라면 더욱 믿고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아특가의 밤 때, 모든 가족이 모여 나들이 사진을 공유하고, 그 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려 소감을 나누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며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 캠프, 어설피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즐겁다

김영우, 전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이 땅의 중2병을 위하여

‘질풍노도의 시기’도 옛 말입니다. 이제는 ‘중2병’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본인과 주변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큰 병입니다. 병원균 또는 바이러스 같아서 전염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신까지 병들게 하는 것인지 키워준 부모님에게 ‘극혐’이라며 뛰쳐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를 찾지 말라면서 나가 놓고도 기껏해야 옆 동네에서 떠도는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부모님의 똥줄을 새하얗게 태우기도 합니다. 19금 딱지가 붙어있는 간식을 즐기거나 으스스한 길거리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본 성인들은 한마디로 ‘노답’이라 말합니다.

이 노답들은 애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니니 이거야 말로 거대 프로젝트의 연구 대상이라 할 만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도 노답 청소년들의 중2병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방송매체에서도 중2병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동수련관, 성인수련관, 노인수련관은 없어도 청소년수련관은 전국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은 거국적으로 보호하고 연구하고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존재인가 봅니다.

사회복지사 팔자를 타고난 덕에 ‘어쩌다 이들이 노답 신세가 되었는데

가’ 고민합니다. 이 노답들을 해답으로 바꾸어 줄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지 고민합니다. 제가 찾은 파워풀한 무기는 바로 ‘친구’였습니다.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이라면 강남까지 갑니다. 선생님 말은 안 들어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오밤중에도 달려 나갑니다. 아! 물론 본인 귀찮으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예외는 있으니까요.

강력한 무기를 고민하다

어찌되었든, 친구라는 무기를 활용하기로 했으니 이 강력한 무기에 어떤 옵션을 붙여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조금만 재미가 없어도 (ㄴ)노잼에서 만든 ‘무관심’이라는 방패로 응수합니다. 어찌다 옵션을 잘못 달았다가는 콩알탄보다 미약한 무기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무관심한 청소년을 별떼고객으로 만들어 줄만한 옵션을 고민하던 중, ‘과거에 나는 청소년기에 친구랑 뭘 하고 싶었는지’ 되돌아보기에 이릅니다.

여러 기억을 헤집다보니 여름방학이 다가올 즈음이면 집에 있던 텐트를 꺼내어 물 호스로 세척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4~6인용 조다쉬 텐트였는데 그 커다란 걸 혼자 킁킁대고 닦으면서도 힘들다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그 목적이 ‘친구들과의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잠시 졸다 잠이 깰 때쯤 눈을 뜨면 대성리, 수동, 청평 등에 도착할 수 있는 동네에 살았던 터라 우리끼리의 여행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정해지면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무엇을 털어올지 역할을 배분합니다. 정류장에 모인 풀이 가관입니

다. 텐트 짙어진 놈, 버리고 와도 될 것 같은 냄비와 부르스타를 쇼핑백에 우겨넣은 놈, 라면과 나무젓가락이 잔뜩 들어있는 검은 봉다리 든 놈, 후레쉬, 모기약 등 잡다한 물품을 롤백에 짹짹 채워 맨 놈. 누가 봐도 재들이 놀러 가나보다 라고 생각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의 피난민 같은 행색으로 여행을 갑니다. 도착한 목적지 계곡 인근 마트에서 회비를 걷어 고기, 숯, 철망, 간식 등을 사면 1박 2일 충분히 놀고먹을 풍족한 여행이 완성됩니다.

2015년~2016년에 청소년 연극 프로그램으로 ‘라이징스타’사업을 진행할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진행한 ‘오디션’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를 물었을 때 일부 청소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친구들하고 놀러갈 수 있잖아요.”

헐.. 연극에 뭔가 흥미가 있어서 참여한 줄 알았는데.. 큰 배신이었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은 옛날의 청소년들이나 요즘 청소년들이나 크게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자신들의 want를 말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뤄볼 수 있도록 하자.’

제가 바라는 청소년 사업의 이상향을 청소년들의 want에 덧붙여봄

니다. 어쩌면 강력했다고 생각한 이 옵션이 사회복지사의 내뇌망상에 불과하여 모집이라는 첫 걸음에서부터 막힐 수도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인원이 발생하거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뤄내는 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없기에 실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패했을 때의 대안도 궁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도 막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어긋나는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알지만, 미리 준비할수록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이 가능해집니다.

역지로 만들어주는 짧은 인연보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오랜 인연

복지관에서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면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참여 인원이 정해지면 홍보하고 모집하고, 모집이 완료되면 정해진 시기에 캠프를 떠납니다. 복지관을 오래 이용해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이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의 참여 청소년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거나, 알아도 어색한 사이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친구와 함께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둘이서만 꿈냥꿈냥하기 쉽기 때문에 둘만의 관계를 허물고 전체적인 소통 구조를 다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보통 1박 2일, 길면 2박 3일의 캠프 안에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관계를 마주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다보면, 이들이 친해질 즈음

캠프가 끝납니다. 그 다음 해 이들이 다시 만나면 또 어색한 사이가 되곤 합니다. 그 다음 해의 캠프나,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혹은 학교 등에서 만나지 못하면 이들의 인연도 거기까지인 겁니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첫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캠프 프로그램 안에서의 잠시 뿐인 친구보다는, 각 개인이 각자 다른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친구를 오랜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둘레사람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여행을 지원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팀을 만들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소만.. 그래도..

‘트래블프렌즈’라는 사업명 아래, 프로그램 참여 규칙이 담겨 있는 사용설명서와 팀 신청서, 홍보물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학교로 공문을 보내 보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문을 받는 학교 시스템에서 복지관 협조 요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원초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맞추어 홍보물을 들고 지역 내 학교 앞으로 나갔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기에 부서원들의 협력 하에 함께 나갔습니다. 하교 길 배고픈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물에 마2쥬도 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였고, 앞 다투어 홍보물을 받아갔습니다. 트래블프렌즈 사업에 대해 궁금해 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방식의 저돌적인 홍보를 해보신 분이면 아실 겁니다. 홍보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예쁜 꽃길도 낭만적인 낙엽길도 아닌, 홍보물이 깔려 있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애써 만든 홍보물이 바닥에 널려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사탕 껍질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바람에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것을.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 다. 원망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나누어 준 것은 홍보물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메시지’였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두쪽 모음+양면인쇄로 최대한 종이를 아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 다. 관심을 보여준 청소년들이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 다.

면접과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원초적인 홍보였음에도 그 효과는 알았습니다. 3개 팀을 모집하는데 무려 3개 팀이나 접수되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채우심을 받았지만 참여한 이들에게 비장함을 심어주기 위해 면접을 내세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각 팀 별로 날짜를 정하여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면접관으로는 부서장, 담당자, 사업협력부서원으로 총 3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무리 소규모 캠프라고 한들 도저히 혼자 진행할 수 없는 일인데다가, 참가자와 담당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팀의 성별에 따라 협력부서원을 요청했

습니다. 그리고 면접부터 모든 과정에 협력부서원이 함께하여 그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흔쾌히 허락해 준 조현정 대리님과 김동규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면접은 이들이 쓴 신청서를 토대로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팀마다 다른 성향, 다른 색깔을 나타냈습니 다. 자기소개를 시켰더니 예의를 갖추다며 굳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을 소개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꽤나 봤나 봅니 다. 전체적인 면접은 만족스러웠고 청소년들도 굳은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나누어주어 부모님께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 계획 - 아무 말 대잔치

면접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각 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 모여 여행을 계획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행 일시, 장소, 코스, 활동, 준비물, 장볼 것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온전히 청소년들에게 맡기기엔 청소년들 스스로 여행을 다녀본 경험이 없기에, 담당자가 MC 및 서기를 맡습니 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온전히 청소년들의 상상 속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험이 없으니 한계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에게는 아직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시켜줍니다. 본인의 자원을 활용하여 답을 찾는 과정에 참고하도록 조언합니다. 다음 회의로

모일 때 까지 청소년들은 각자의 자원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여 옵니다.

“지리산을 가서 반달곰의 실체를 밝혀내자”

“곰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냐?”

“도망가야지”

“아 근데, 저녁에 바비큐 먹을 고기는 얼마 사야 되냐?”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 끓일 때 고기 2kg 정도 넣는다던데?”

“계곡에서 새우 잡아서 라면 끓일 때 넣어 먹자”

오고가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진지함을 요구할 만도 하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로 필터링 없이 화이트보드에 적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본인들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적당히 시간을 체크해가면서 이야기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수다로 변하지 않게 분위기만 환기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토대로 나눈 의견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줍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미션 -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집-학교-학원-집. 쳇바퀴 같은 청소년들의 일과입니다. 아침에 등교하여 저녁에 학원 수업까지 마치고 다시 집에 오면 밤 10시는 기본이라 합니다. 더러는 토,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

니다.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게 요즘 청소년들입니다. 이 바쁜 청소년들에게 여행경비를 어떻게 마련하도록 해야 스스로 노력하여 얻었다고 생각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자니 청소년들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느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고, 모금을 하자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할 모금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목적이 변질될 것 같아 제쳐두었습니다.

본분 : 1.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2.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기 과업을 바탕으로 미션을 마련했습니다. 학업, 진로탐색, 가족, 이웃, 국가, 준법정신에 대한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미션을 수행한 만큼 예산 포인트가 쌓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 당 최대 적립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두어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했으며, 그렇게 때문에 팀원이 다 함께 노력해야만 팀 전체가 만족할만한 예산이 적립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행위’만으로도 보상을 받을만한 일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돈에 혈안이 된 사람마냥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갔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자 다소 헤이해지는 모습

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체 카톡방에서 기습적으로 추가 미션을 제공하거나 여행갈 곳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션 수행=여행 경비 마련’으로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미션에 대한 의미가 변질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돈에 대한 궁리보다는 즐거운 여행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대화하였고, 예산 포인트 현황 공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여 청소년들이 서로를 독려하도록 하였습니다.

D-Day! 부족하지만 풍족하게

회의하고 예약하고 준비한 모든 과정이 결실을 이루는 날입니다. 각 팀별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떠납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지만, 각자 팀마다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떠납니다. 팀이 다 모이고 출발하기 전 캠프 일정에 대한 브리핑과 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안전교육을 끝나치면 부모님들에게 출발 안내 문자를 합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안내 문자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더 그렇습니다. 하루 두 세 번의 문자이지만, 내 자녀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복지관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처음 모여서 출발할 때, 오전 일과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저녁 식사 후 저녁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이튿날 오전일과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최종 프로그램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기 전, 복지관에 도착하여 해산했을 때.. 문자에 응답하지 않는 부모님은 있어도 그만 좀 보내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애들이 사춘기라 한 번 나가면 함흥차사이기 일쑤인데 이렇게 연락을

해주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통편은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기사채용 중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저것 비용을 따져보더니 기사채용을 선택합니다. 복지관 차량으로 담당자가 청소년들을 모시고 가는 대신, 성수기 스타렉스 렌트 비용과 유류비만큼 예산 포인트를 제하는 조건입니다.(훗날 이들이 성인이 되어 여행을 떠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교통편의 한 방법으로 제안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차량 안은 음악소리와 신남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팀의 경우는 어찌나 신나하던지 달리는 내내 차량이 들썩들썩하기도 했습니다.(안전벨트는 잘 착용·점검했습니다) 가는 길 중간 중간에 차가 밀려 오랜 시간 이동해야 했지만 이들의 소음 속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정이 흘러가지는 않기에 변경하고 수정하면서 직접 진행해 나갑니다.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보는 것 하나도 신중히 고릅니다. 시키지 않아도 회계 담당을 정하더니 고르는 품목 하나하나 가격을 계산기로 두들겨 가며 구입합니다. ‘그 동안 가족끼리 마트가서 이것저것 간식을 담으면 부모님이 도로 빼서 갈등이 있었는데, 막상 친구들과하고 경험해보니 그럴 만 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숯불에 바비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살이 아닌 삼겹살을 고릅니다. 기름이 많이 떨어져서 굽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 해줬건만 삼겹살이 맛있다는 굳이 반반 섞어 삽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여름 밤의

불쇼를 맞이합니다. 행여나 안 익은 고기를 먹을까 염려되어 담당자가 투입됩니다. 정말이지 손이 녹아 없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첫 모집 당시, 프로그램 신청 조건 중에 다음의 사항을 넣었습니다.

1. 여행 소감문 필수 작성
2. 사진 및 영상촬영 시 도망금지
3. 저녁프로그램으로 1인 1개 레크리에이션 진행 및 ‘꿈 토의’ 참여

이상의 조건을 미리 고지해두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여행 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하더라도 얼굴을 가리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밤에는 뭔가 오글거림이 있을 것이라 직감하지만, 반대로 나름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캠프의 백미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무슨 관계냐고 물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녁 프로그램이 없으면 대충 TV나 보면서 밤을 보낼 것 같아서 참가자 1명 당 1개의 레크리에이션을 직접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각자가 게임을 준비해왔고, 돌아가면서 진행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꿈 토의에서는 잠을 유발하는 수업시간이나 고리타분한 연설 시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꿈 외에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등 폭 넓은 주제로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여행 중 밤이 가져다주는 감성은 조금 오글

거리는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만들어줍니다. 관심사 이야기를 하다가 공포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기에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해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는 밤새도록 청소년들끼리만 놀게 두어도 숙소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꿈 토의가 끝난 후 다음 날 몇 시에 기상하면 계획대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겠는지 묻습니다. 스스로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식사 준비하는 인원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도록 논의 하고 나면, 이제 더 자유롭게 불타는 심야를 보냅니다. 추가로 레크리에이션을 하거나 누워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각자의 관심사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담당자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전 날 이 친구들이 벌려 놓은 환경 정리도 해야 하고 아침식사를 위한 기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준비를 하기로 한 친구들을 먼저 깨웁니다. 이들이 정성껏 요리하는 소리와 냄새에 추가 기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완성된 요리는 고작 라면이지만, 눈썹도 안 뜰 눈을 하고서 맛있게 푹딱합니다. 아침이라 안 먹힐 만도 한데, 밥까지 말아 먹습니다. 정리 후 퇴실을 하고 나면 이튿날 일정을 진행합니다. 여행 계획에 기초해서 가기로 했던 장소를 관광 후 모든 여행 일정이 종료됩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청소년들이 차 내에서 잠에 취해있습니다. 피곤해하는 걸 보니 성공적인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움 · 소망 · 감사가 있는 여행 후기

트래블프렌즈 사업의 묘미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속이 타고 답답할 수 있지만, 어른이 먼저 움직여서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 둘 해주기 시작하면, 결국 청소년들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의존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또 다시 이 여행은 어른이 해주는 여행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방향성만 잡아주었을 뿐 청소년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너무 빠듯하게 잡아 소화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되었지만 직접 겪어보고 그들 스스로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단, 막다른 길을 마주쳐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할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캠ป์ 중에는 관광 장소, 밥 메뉴 하나로도 불만족을 표하기 쉽지만, 본인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이니 때 아닌 불쇼로 인해 다 타버린 고기, 이른 아침 먹는 라면조차 감사하게 먹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중에 비가 내려도 일회용 비닐 우비 하나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어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고,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시기. 그러나 불안정해보이고 온전히 맡기는 어른이 없기에 어긋나기 쉬운 시기. 어설프고, 부족해보이고, 모자란 내용에 불과한 짧은 여행에 대한 성취였지만, 그들의 인생 중에는 가장 큰 성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배우고 스스로 이루어 나갈 그들의 앞으로의 성취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쿨렐레에 사랑을 싣고

황은영,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만남의 계기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에 문자 및 유선안내를 통하여 자신을 찾고 싶고 이웃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하고 있다 보니 주말이 좋다는 분, 평일이 좋다는 분 다양한 요일과 시간대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셨습니다. 이에 가장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평일에 진행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참여자들과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을 하고 일자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드디어 모임 날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그 날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당일 모두 참여하실지 담당자인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모임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만남

드디어 모임이 있는 날.

모두 시간을 맞추어 약속 장소에 모였습니다.

어색하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의2동에 살고 있는 00엄마입니다”

“저는 구의3동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어색하여 목소리도 작고 많이 긴장을 하셨는지 화난 사람들 같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누구 앞에서 소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안했으며 진짜 옛날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성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하여 모였는데 자신의 이름은 모두 잊어버려서 쓸쓸하였지만 자신을 찾고 이웃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커피한잔을 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표정들에서 경계를 조금씩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지내는 분들은 그래도 웃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처음 만나는 분들을 리드하여 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

자조모임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서로 논의를 하고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으로 안면을 익히고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 처음 보다는 분

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하며 들어오시는 어머니들이 서로 반갑게 맞아주셨으며 얼굴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고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음악을 진짜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애 키우다보니 정서적으로 메탈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악을 하면 어떨까요?”

“저도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기타를 배웠는데 그래도 그 실력이 조금은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악기를 배워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떤 악기를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단시간에 배울 수 있고 이동도 가능한 악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럼 우리 오카리나나 우쿨렐레 어떨까요?”

“그런데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나도 악보 볼 줄 모르는데... 학교 때 배우기는 했는데 그게 언제야. 너무 오래되어서 모두 잊어버렸는데.... 가능할까요?”

모두 악보를 볼 줄 모른다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오카리나는 우리 옛날에 피리 불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요? 그리고 우쿨렐레는 악보를 볼 줄 몰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카리나 또는 우쿨렐레로 의견이 모아졌고 강사 분을 통하여 진짜 악보를 볼 수 없어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쿨렐레의 경우 악보를 보지 못하여도 연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우쿨렐레를 배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쿨렐레 수업 시작

매주 일회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첫 수업일.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우쿨렐레를 등에 메고 모였습니다.

모두 비장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손도 굳고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진짜 바짝 긴장하고 강사님과 인사를 나누었고 경쾌한 강사님과 코드 하나하나를 배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쿨렐레의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우리도 할 수 있겠다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대

시간이 흘러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의 개관행사가 있다고 하며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악기로 우리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지만 앞으로 한 달이 남았으니 가능하지 않

을까? 결국 우리는 무대에 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짜 가슴 떨린다. 가능하겠지?”

결정을 했지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무대에 서는데 의상은 통일해야지”

“모두 집에 청바지는 있지 그럼 우리 청바지에 하얀색 티로 통일하지”

“그리고 다이소에서 모자 쓴 거로 사서 착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무대에 서는 거니 좋을 것 같아요”

“모자는 내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대준비와 함께 한 달 동안 열심히 두 곡을 연습했습니다.

개관행사 당일 직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아버이 은혜’와 ‘연가’를 지역 어르신들 앞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과 함께하니 그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대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비록 서툴기는 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는 어머니들을 향하여 어르신들이 “진짜 고생했어. 너무 좋았어”, “정말 잘 하네” 하는 칭찬을 들으며 어머님들은 가슴이 벅차고 행복을 맛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받기만 했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고들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대

비록 서툰 솜씨이지만 첫 무대를 마치고 벌써 한 달이 되어갔습니다. 재미있고 신나게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광진구 가족사랑축제에서 우리의 솜씨를 자랑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세 달째 배우고 있는데 많이 망설였지만 지난 번의 무대에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5일 광진구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노래는 00가 하는 것이 좋겠어. 어차피 노래는 함께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야외이니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주도를 하는 것이 좋겠어. 어때? 목소리가 크니 할 수 있겠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노래 잘 하잖아. 지난번 개관행사 때도 잘했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부를 거야. 우리 한번 해보자고”

어머님들은 또 도전을 해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일 많이 모인 지역주민들을 보며 모두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일찍 모여 연습도 하고 서로 격려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걱정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아 정말 떨려서 혼났네”

“그렇게 어떻게 연주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야! 00 노래 너무 잘했어”

“가슴이 쿵닥거려서 혼났어요. 목소리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진짜 실전에 강한가 봐요. 모두 잘 했어요”

“그래 우리 진짜 잘 한 거 같아. 모두 수고했어”

서로 격려를 하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 줄이야 모두들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표정들이 얼굴 가득이었습니다. 응원하기 위하여 함께 한 배우자분들과 자녀들도 우리엄마 최고라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며 엄지 척.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진짜 몰랐어.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였어”

“진짜 좋다 우쿨렐레를 배운지 세 달인데 벌써 두 번째 무대를 가졌어. 우리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모두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대를 준비하다

4월과 5월의 흥분과 짜릿함을 함께 나누며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모두 더욱 신나고 재미있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7월 10일에 광진구 양성평등대회가 있는데 아마추어들의 장기 자랑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사회복지사인 저는 어머님들께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도전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추억이잖아요.”

“벌써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해보지요.”

“황쌤 우리 다시 한 번 해보지요. 신청부탁해요. 그거 저희가 해야 하나요?”

“아니예요. 신청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광진구양성평등대회에 도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양성평등대회이니 그에 맞는 노래를 선정해야 할 텐데.”

“우리가 작곡을 할 수는 없으니 개사를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그거 좋겠네.”

“그럼 개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 그럼 곡은 뭐로 하는 게 좋을 까?”

“꿈을 먹는 젊은이와 연가 어때요?”

“그래 우리들에게 익숙한 곡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럼 각자 양성평등과 어울리는 가사를 생각해서 모이도록 하지.”

이틀 후 각자 가사를 적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그 가사가 좋겠어.”

“그래그래. 여기는 그 가사. 우리 천재인 것 같아. 이러다 작사가로 나서는 거 아니야?”

각자 작성한 가사들을 서로 짜 맞추며 드디어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 : 우리 서로 어깨를 나란히-연가	제목 : 함께 하는 세상-꿈을 먹는 젊은이
비바람이 치던 마음 잔잔해져 오면	여자라고 일을 차별하는 남성이여
당신 존중 감사해요 당신 마음 감사해	우리 모두 같이 즐거웁게 일을 해요
무시하는 마음속에 마음이 아파오고	남자라고 일을 차별하는 여성이여
존중하는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트네요	우리 모두 같이 즐거웁게 이해해요
우리함께 배려해요	평등을 언제나 가슴속에 담고서
같이 사는 우리 존중해요	성차별은 모두 저 강물에 버려요
우리함께 사랑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 속에서
내 사랑 영원히 정다웁게	사회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해요

“역시 우리는 실전에 강해. 가사 너무 멋있어”

서로를 칭찬해주며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의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바지는 각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색으로 입는 것이 좋겠어. 하지만 우중충한 색은 안 되고 노랑, 주황, 초록 등 새초롬한 색으로 그리고 위에는 하얀색으로 어때?”

“그래 좋은 생각이야 색이 서로 겹치면 안 되니 우리 카톡으로 색을
정하자고”

“그리고 우리 황샘도 함께해야하지 않을까? 샘도 해야지요”

“저도요”

“당근이지요 샘도 준비하세요. 타악기도 필요하니 황샘은 타악기 담
당. 00와 우리팀의 마스코트 컨셉은 귀여움. 노라는 대답은 사양”

“00는 모자에 꽃 장식 잊지 말고 준비해”

결국 저도 함께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대

드디어 결전의 날.

모두 설레고 즐겁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조명과 음향기기, 무대 장난이 아닌데. 우리 잘 할 수 있지. 우
리 모두 파이팅!!”

서로를 격려하며 드디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진구 주부소녀시대입니다 ~~~”

무대인사와 더불어 우리가 준비한 곡을 선사하였습니다.

결과발표 시간.

저희의 이름은 인기상, 3등을 지나도록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등 하는 거 아니야”

“설마 잘한 팀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자고.”

결과는 준우승. 너무 신나고 가슴 벅차 어머니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
어났습니다. 그동안 노력하기도 하였지만 결과가 이렇게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상패와 꽃다발, 상금을 받아 안고 모두 함께 시원한 커피 한잔을 마
시도록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좋아. 이 기분 어떻게 할 거야. 한 잔씩 하면 좋겠지만 아쉽지
만 다음을 기약 해야겠네 집에 아이들 저녁은 해줘야지”

“그래요. 내 인생에 이런 즐거운 일은 없기는 하지만 엄마이니 어쩔
수 없지요. 우리 다음에 만나 기쁨을 다시 나눠요”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아쉬움을 뒤로하며 엄마의 자리를 지키
기 위하여 가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나눔의 행복

어머님들은 귀뚜라미 우는 가을까지 우쿨렐레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우쿨렐레라는 작은 악기를 통하여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기쁨과 행복을 줌으로 인하여 본인은 더욱 큰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 뿌듯해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나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은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리마켓 운영단 활동을 통하여 그 수익금으로 연말에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내의나 이불 등을 전달하며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지역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 어머님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좌충우돌 밀반찬

김동규,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흰색마티즈 사용합니다 I

경로식당이 없는 우리복지관에서는 화·목에 소규모 조리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밀반찬을 만들고 화·목에는 오후, 수·금에는 오전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 있을 때 일입니다.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량 여부를 확인 한 뒤에 메신저 전체 쪽지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흰색마티즈⁴⁾ 사용]

11/4(수) 오전 10시 - 12시까지 물품구매로 차량사용 합니다.

잠시 후 밀반찬 담당 선생님에게 개인쪽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수/금에는 오전에 흰색마티즈로 배달을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배달이 있는 걸 깜빡하였습니다. 다른 차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복지관에는 여러 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밀반찬 배달을 전용으로 하는 차가 흰색마티즈입니다. 배달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지관 밀반찬 배달 시간도 짧았었던 제가 2년째 밀반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밀반찬 담당을 하면서 느끼고 진행하였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 100과의 인연

식당이 따로 있지 않아서 조리봉사팀에 의해 반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조리를 하고 하루에 2개 팀씩, 한 달에 1번 정해진 날에 18~20개 팀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 인원은 대략 100여명정도입니다.

밀반찬 업무를 맡게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조리봉사팀이 올 때 마다 내려가서 담당자가 변경된 부분을 안내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각 팀의 특이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복지관 행사에 관심 많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팀 - A, B, C팀, 조리만을 원하는 팀 - D, E, F팀, ... 각 팀별로 특색이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20개의 조리봉사팀, 조리봉사자들과의 관계형성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교육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친해졌을까?’

‘어르신들과는 어떻게 관계형성을 하였지?’

교육문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과 관계형성을 할 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을 조리봉사팀의 봉사자 어머니들과도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미숙한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밀반찬 담당을 하게 된 김동규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다 여자선생님이었는데 남자선생님은 처음이네. 남자가 잘 할 수 있겠어? 신선한 재료 잘 볼 수 있을까?”

신기하게 바라보는 눈빛과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의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들 말씀처럼 신선한 재료를 보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하고 아는 반찬이라곤 제육볶음, 소불고기, 떡갈비, 돈까스 등 제가 좋아하는 고기반찬 종류들뿐이었습니다.

각양각색

많은 인원이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리 당일 대파가 없다, 생강이 없다 등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팀, 지금 음식은 밀반찬으로 드릴 수 없다는 팀, 도서관에서 커피를 내려서 달라는 팀, 앉을 의자를 준비해달라는 팀, 당일 반찬 메뉴의 세부적인 kg까지 요청하는 팀 등 각자 팀마다 요청하는 것들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논의가 필요한 것,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조리봉사팀에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모든 팀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긴 힘들었습니다. 저번 달에 이야기 했는데 왜 아직도 바뀌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팀의 요청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요청사항의 반영된 것들을 조리봉사팀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조리실에 내려가면 먼저 어머니들께서 먼저 조리실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곤 작은 칭찬들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조리하고 나면 옷에 냄새가 났는데 페브리즈랑 핸드크림 덕분에 기분 좋게 갈 수 있었어요.”

“조리 시 쓰레기들 분리하는데 고민이 많았는데 새롭게 쓰레기통을 구비해줘서 고마워요.”

“키친 타일이 매번 위치가 바뀌어서 새것을 사용했는데 전용걸이를 마련해줘서 쓰기 편해요.”

“조리실이 너무 깨끗해서 들어올 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은 뭐 먹지?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을 때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것 있으세요..?”

“매번 똑같은 음식들만 먹으니 질리네요...”

이 고민은 어르신들의 밑반찬을 드릴 때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조차 어제 먹은, 며칠 전에 먹은 음식을 또 먹는 것보단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어르신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문 식자재 납품업체⁵⁾에서 식자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양사 선생님께서 매월 식단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식단표를 보고 복지관 사정(지난달에 하지 않은 메뉴, 조리봉사팀 인원 및 특성 고려)에 맞춰서 조리지침서를 다시 만들고 조리봉사팀에게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 밑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리지침서를 만들기 용이하게 지금까지 한 메뉴들을 엑셀로 반찬 종류, 각 재료의 양등을 세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리지침서를 작성할 때 전달, 전전달과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식단표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음식이 나오고 있었

5) 2016년 1월부터 전문 식자재 납품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복지관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재료를 구매하고 조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과 음식 책에 있는 반찬들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상시 돌아다니면서 밀반찬가게를 들어가서 반찬 메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봉사팀 팀장님들에게 직접 새로운 밀반찬 메뉴를 조언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메뉴들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밀반찬이긴 하지만 2시간의 조리시간에 끝낼 수 없는 메뉴 선정, 밀반찬과 맞지 않은 메뉴 선정, 조리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메뉴 선정, 제철이 아닌 메뉴 선정 등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조리지침서에 작성하고 메모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매일,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고 조리봉사팀에겐 조리를 요청하고 어르신들에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흰색마티즈 사용합니다 II

고기반찬 종류만 잘 알았던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철 음식의 종류, 신선한 재료 선발 방법, 조리봉사팀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 등 많은 것들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가없이 오랜 기간 봉사를 해주고 있는 20개의 조리봉사팀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특별한 날을 문자로나마 축하를 하고자 조리봉사팀의 생년월일과 연락처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가 끝나면 특별한 날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조리봉사팀들이 만들어주신 따뜻한 한 끼, 밀반찬을 어르신 가정에 배달하고자 합니다.

2017 서비스제공팀 실천 이야기

만나는 이는 달라도 뜻은 하나